

코스피지수	2239.69	↓	-22.95
코스닥지수	676.52	↓	-6.95
환율 (원 · 달러)	1167.00	↑	+8.9

비즈 프리즘 | 연초부터 금융가 수장들 운명 결정할 빅이슈 줄줄

재판·금감원 징계…회장직 걸린 운명의 1월

조용병 회장 채용비리 1심 축각
손태승 회장·함영주 부회장 대상
금감원 DLF 제재심 결과도 주목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왼쪽부터). 1월 채용비리 공판, DLF 제재심 등 금융그룹 최고 경영진들의 거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굵직한 이슈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제공 | 신한금융·우리금융·하나금융

회장에 연임됐거나 차기 회장을 노리는 금융그룹 경영진들에게는 새해 1월이 정말 더디게 흘러가는 한달이 될 전망이다. 이들의 거취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굵직한 이슈들이 1월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우선 최근 연임이 확정된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은 22일 오전 10시 서울동부지법에서 2015년 신한은행장 재직 당시 채용비리 관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받

는다. 이미 검찰은 징역 3년과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더라도 원칙적으로 회장직 연임에는 지장이 없다. 실형을 받은 사실은 행 집행 이후부터 임원 결격 사유로

작용한다는 신한금융의 내부규범 때문이다. 정작 변수는 법정구속 여부다.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면 정상적인 회장직 수행이 어려워 직무대행을 선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이 22일 진행하는 우리금융과 하나금융의 DLF(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판매 관련 두 번째 제재심도 관심이다. 이날 제재심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DLF 판매 당시 KEB 하나은행장)의 징계수위를 다룬다.

16일 열린 첫 제재심에서 하나금융의 입장 설명이 길어지면서 우리금융 건은 2시간 밖에 심의하지 못해 22일로 미뤄졌다. 만약 우리금융 중심으로 진행할

22일 제재심에서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30일 세 번째 제재심을 진행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미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사전 통보했다. 제재심에서 이 징계가 최종 확정되면 두 사람은 최대 5년 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최근 차기 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받은 손 회장의 경우 연임이 확정되는 3월 주주총회 이전에 금감원 징계가 확정되면 연임에 차질이 생긴다. 다만 주주총회 이후에 징계가 결정되면 연임에는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의 뒤를 이을 유력한 주자로 꼽히는 함영주 부회장도 징계 여부에 따라 차기 하나금융 회장 도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쌍용차, 다카르 랠리 3년 연속 완주

쌍용자동차가 지옥의 레이스로 불리는 2020 다카르 랠리 3년 연속 완주에 성공했다. 쌍용 모터스포츠팀(사진)은 17일(현지 시간) 사우디 아라비아 하라드~키디야 사이 429km의 마지막 제12구간을 무사히 통과했다.

쌍용자동차의 2020 다카르 랠리 최종기록은 53시간 59분 52초로 T1-3(이륜구동 가솔린 자동차) 부문 7위, 자동차 부문 종합 24위를 기록했다. 이로써 쌍용자동차는 2018년 티볼리 DKR, 2019년 렉스턴 DKR에 이어 올해 코란도 DKR로 '3년 연속 다카르 랠리 완주'에 성공하며 SUV 전문기업의 기술력을 입증했다.

르노삼성, AS 정비 '서비스 메뉴' 실시



르노삼성자동차는 차량 정비 고객에게 투명한 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R

SM 서비스 메뉴'(사진)를 국내 업계 최초로 실시한다. AS 정비 상품의 내용과 공임·부품 합산 가격을 고객이 접수처, 대기실 등에서 확인하고 상품을 선택하는 정책이다. RSM 서비스 메뉴는 엔진오일, 에어컨 필터, 브레이크 패드 등 자주 이용하는 유상 서비스부터 적용한다. 전국 12개 지역점과 참여를 희망한 270개의 협력서비스점에서 우선 시행한다. 르노삼성자동차는 서비스 메뉴 대상 품목과 실시 서비스점을 계속 확대할 예정이다.

원성열 기자

“귀성길, 23일 오전 10시 전에 출발하세요”

T맵 5년 간 빅데이터 분석
25일 주요구간 가장 혼잡

올해 설 연휴 언제 고향으로 내려가게 좋을까. 고민이 된다면 모바일 내비게이션 서비스 기업들이 빅데이터를 분석해 내놓은 귀성·귀경길 전망을 참고하면

좋다.

우선 SK텔레콤은 T맵의 5년 간 데이터를 분석해 '23일 오전 10시 이전, 24일 오전 5시 이전이나 오후 4시 이후'를 고향으로 내려가기 가장 좋은 시간대로 꼽았다.

주요 구간인 서울-부산, 서울-대전, 서울-광주 고속도로는 상하행선 모두 설 당일인 25일에 역귀성 차량과 나들이 차량이

몰리며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측했다. 귀경길의 경우 27일이 26일보다 정체가 덜할 것으로 예측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우 3년치 카카오내비 빅데이터를 분석해 “24일 오전 8~10시 출발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연휴가 비교적 짧아 명절 전일인 24일 오전 구간에 교통량이 집중될 것이라 설명했다. 귀경길은 교통량이 분산돼 구간별 혼잡 시간대가 다를 것으로 전망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23일 오전 10시 이전 또는 24일 오전 5시 이전이나 오후 4시 이후'를 이번 설 연휴 고향으로 가기 가장 좋은 시간대로 꼽은 SK텔레콤 T맵. 사진제공 | SK텔레콤

설 연휴, 인천공항 가장 붐비는 날은 '24일 금요일'

하루 평균 21만여 명 이용 전망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기간인 23일부터 27일까지 약 103만 9144명, 하루 평균 약 20만 7829명의 여객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지난해 설 연휴 하루 평균 20만 2085명보다 2.8% 증가한 수치다.

이번 설 연휴에 이용객이 가장 많은 날은 24일 금요일로 22만3157명이 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출발여객이 가장 많은 날도 24일로 11만1152명이 떠날 것으로 봤고, 도착여객이 가장 많은 날은 27일 월요일로 11만4123명이 입국할 것으로 추정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연휴 기간 중 혼잡 시간대에 1여객터미널 보안검색대를 추가로 운영하고, 1여객터미널 2번 출국장의 운영시간을 30분 연장한다.

공항철도 역시 25일과 26일은 임시열차를 투입하고 막차 운행구간이 연장된다.

특히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환자가 국내에서도 발생함에 따라 입국장 등 다중 여객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일제 소독을 실시하는 등 방역체계를 강화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구광모 LG회장 배웅하는 신동빈 롯데 회장

구광모 LG 회장(오른쪽)이 21일 서울 송파구 아산병원 장례식장의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빈소에서 조문을 마치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배웅을 받고 있다. 조문 마지막 날인 이날 정몽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모친인 이명희 신세계 회장과 함께 빈소를 찾았다. 또 허청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금준수 한화 부회장,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박재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이기전 전 고용노동부 장관 등 고인을 애도하는 발길이 이어졌다.

정정욱 기자, 뉴스스

세정 올리비아로렌, 새 모델에 김태희



세정의 여성복 브랜드 올리비아로렌이 새 모델로 배우 김태희(사진)와 계약했다. 회사 측은 “아름다움의 대명사로 불리는 김태희씨의 고급스럽고 여성스러운

이미지가 브랜드와 잘 어울려 모델로 선정했다”고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올리비아로렌은 김태희와 함께 온·오프라인 채널에서 주요 고객인 중·장년층 여성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상품 라인을 강화하는 등 브랜드 리빌딩에 나설 예정이다.

정정욱 기자

자동차기자협회 ‘올해의 차’ 시상식, 신형 K5 수상

올해의 차·디자인상 2관왕

사단법인 한국자동차전문기자협회(AWAK 회장 하영선)는 21일 오후 3시부터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0 올해의 차'(Car of the Year 2020) 시상식을 개최했다.

한국자동차전문기자협회가 선정한 '2020 올해의 차'는 기아의 3세대 신형 K5다. 첨단 VR 설계의 품질 검증 프로세스로 디자인 및 품질 완성도를 높여 '올해의 차'와 '올해의 디자인' 등 2관왕

에 올랐다.

수상자로 무대에 선 권혁호 기아차 국내사업본부 부사장은 “3세대 K5는 디자인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출시를 늦출 정도로 심혈을 기울였다. 올해 목표는 7만대인데 그 이상 판매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올해의 SUV는 기아자동차 셀토스가 수상했다. 한석원 기아차 국내사업전략담당 상무는 “하이클래스 SUV라는 별칭에 걸맞는 상품성과 공간성이 인정받은 것 같다. 앞으로 더 뛰어난 신차를 출



21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자동차전문기자협회 '2020 올해의 차' 시상식 수상자들. 오하네스 손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제품전략 기획팀 상무, 한석원 기아차 국내사업전략담당 상무, 권혁호 기아차 국내사업본부 부사장, 박준영 기아차 국내마케팅실장 상무, 정일영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마케팅홍보 총괄이사(왼쪽부터).

사진제공 | (사)한국자동차전문기자협회

시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올해의 친환경'은 재규어 I-PACE가, '올해의 퍼포먼스'는 벤츠 AM

G의 더 뉴 메르세데스-AMG GT 4-도어 쿠페가 각각 수상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SKB-티브로드 합병 최종 승인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에 대한 정부 심사 절차가 완료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3개사의 법인 합병 및 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한 최다액출자자 변경 건을 조건부 허가했다. 지난해 2월 인수합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지 1년 만이다. 합병법인은 4월 출범 예정이다. 정부가 내건 조건은 공정경쟁과 지역성 강화 등이다. 이번 합병을 통해 국내 유료방송 시장은 KT 계열과 CJ헬로(LG헬로비전)를 인수한 LG유플러스, 티브로드와 합병하는 SK브로드밴드 '3강 체제'로 재편됐다.

김명근 기자